



1

에스토니아의 자랑, 에스텔론

에스텔론은 모국 에스토니아의 자존심을 세우는 브랜드다.

에디터 전종현

에스토니아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 3국 중 하나로,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2010년 OECD에 가입하는 저력을 발휘한 유럽의 신흥 경제국이다. 상고적부터 에스토니아인의 땅이었지만 13세기 이후 독일, 덴마크, 스웨덴, 폴란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고 시월혁명으로 제정러시아가 무너진 후 1918년에 독립했으나 1940년 소련이 침공해 소비에트연방에 강제 편입되었다. 소련이 붕괴된 1991년에야 에스토니아공화국이란 독립국가로 주권을 되찾은 참으로 사연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에스토니아에서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에스텔론의 위상은 특별하다. 국가명을 차용한 이름에서 자국에 대한 자긍심이 보이는 에스텔론은 30년 이상 업계에서 일한 알프레드 바실코브가 2010년 수도 탈린에서 설립한 신생 브랜드다. 독보적 기술력과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업계의 주목할 브랜드로 급부상했고, 지난 CES 2015에서는 최고 혁신상까지 수상하며 세계적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로 그 위상을 공고히 다졌다. 지난 2월 평창 동계 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한한 케르스티 칼룰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에스텔론의 소름이 위치한 오드 메종(ODE Maison)을 특별히 방문했을 정도다. "1988년 200여만 명의 군중이 손에 손을 맞잡고 노래한 620km 길이의 평화적 반소비에트 혁

명인 '노래 혁명(Singing Revolution)'은 에스토니아 독립의 기폭제가 됐다. 에스토니아인에게 음악은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다. 에스토니아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에스텔론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에스텔론의 공식 수입사 오드는 향후 에스텔론과 협업해 에스토니아와 다양한 문화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02-512-4091

1 하이엔드 오디오업계에 존재감을 알린 에스텔론의 첫 제품, XA.
2 에스토니아의 첫 여성 대통령 케르스티 칼룰라이드가 오드 메종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